

英 여왕 안동나들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안동 화회마을에 온다고 한다. 일상의 나들이가 아니라 여왕의 73회 생일잔치상을 받으러 온다는 것이다. 실로 진기한 뜻밖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영연방 제국의 맹주였으며 거대한 식민지를 호령하던 종주국이었다. 근대사에서 이처럼 강대한 국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만큼 인류사회의 개척 해안과 광천도 많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과 더불어 그들의 언어는 지금 세계의 공용어처럼 되었고, 세계 대척마다 영문학이라는 것을 통해 영미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 나라의 여왕이 생일상을 받으러 우리나라에 온다는 소식은 분명 놀랍기도 하고 진기하기도 하다. 그것도 하필이면 시골이 아니라 잘 개발된 관광단지의 산자수 명한 명승지가 아니라 거의 오지에 가까운 안동하고도 화회마을에 온다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가장 한국적인 곳을 찾아 여왕의 생일을 축하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이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들인가. 교통도 불편하고 관광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세계에서 그중 지체 높으신 여왕님이 찾아오다니 뭔가 언뜻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해외 여행을 많이 한다. 보도에 따르면 IMF 이전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남부에서 해외로 나가 돈을 뿌리며 돌아온다고 한다. 심지어는 해외여행을 해도 기억에 평생 남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부모 손에 이끌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로 세계를 누리고 있는 중이다. 세계화는 과연 그런 것일까. 제가 태어난 남국의 산, 강, 해변, 섬 그리고 나무와 풀같은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나라 자연과 도시를 누리고 다니는 것이 그것인가. 민족공동체의 문화적 기반이



홍기삼 (동국대 교수·국문학부)

“해외로 해외로 세계화 아니다 우리문화 알아야

는 평범한 인식과 자각 속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나는 청년시절, 의조모께서 화회마을의 옥면서당에서 자취하며 독거한 적이 있다. 마을 앞 낙동강을 건너편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정자처럼 세워져 있는 집이 옥면서당이다. 그 곁방에 서에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를 집필하였다는 세실재(洗心齋)가 있는데 영광스럽게도 그 방에서 책을 읽으며 잠시 앉은 시간을 머문 적이 있다. 그곳의 고요와 적막, 절벽 아래로 구비 구비 휘어져 흐르는 강과 옛이 야기처럼 들려오는 화회마을의 그처럼 아름다운 화회마을을 둘러 여왕의 행차를 마련한 사람들의 안목에 나는 그저 감탄하고 또 감탄할 뿐이다.

물을 돈쓰듯 아껴야 할 때

나일강 주변국 20년간 물분쟁...한국도 물부족 국가

3월22일 '세계 물의 날'

“세속에 살면서 재물에는 재량 있음은 스스로 눈떠 욕심을 버려 죽음을 알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쓰면 그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니 욕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최상이다.”(북경경)

불교는 예로부터 절약을 미덕으로 삼아 왔다. 그렇기에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허물며 자연스레 얻어진 물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남비의 수준을 넘어서 자연을 해치고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죄악이다. 성철스님이 존경받는 이유 중의 하나도 ‘절약의 미학’을 몸으로 실천해 보였기 때문이다.

물을 마구 쓰는 탓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이제는 “물을 돈 쓰듯 아껴 써야 한다”는 말로 뒤바뀐 날도 멀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말 그대로 ‘물 쓰듯 써버린 물’이 이제는 인류가 느끼는 갈증의 주요 이유가 될 전망이다.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국제연합이 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의 건의를 수용해 물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심각하다.

지난달 열린 ‘세계 물부족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유네스코와 세계기상기구(WMO)는 “현재 물부족이 심각한 나라는 25개국이지만 2025년에는 34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이라크, 시리아 등 나일강 주변국들은 20년간



◇수자원공사의 물절약 포스터

물분쟁을 계속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면서도 소비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물 낭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 있다. 1인당 수자원 활용 가능량은 세계 평균치의 11%에 불과

하며, 부족량도 2011년이면 연간 33억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물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5%로 나타난 매일경제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결과와 우리의 물낭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짐작케 해준다.

하지만 이렇게 물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절약할 줄 모른다. 욕욕탕에서는 샤워기를 마냥 틀어놓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다. 세수한 물로 걸레를 빨아 쓰는 주부는 물론 아이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타이르는 부모도 찾아보기 힘들다.

사장이 이렇자 물 공급정책과 효율적 물 관리 등 수요관리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물관리정책추진위원회 위원 23명을 위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만으로 물 부족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아껴쓰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심지어는 물에 대한 적정한 가격정책을 통해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hia.com)

좋은 물이란 찬물에 육각수 다량함유

물에 좋은 물은? 끓이지 않은 생수여야 한다. 끓이면 각종 미네랄이 파괴돼 생명을 잃는다. 이상한 맛이나 냄새, 색이 없는 무색무취도 중요조건이다. 맑은 물의 온도가 섭씨 10~15도일때 최상의 맛

을 낼 수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물은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으며 물을 냉각시킬수록 많이 생겨나므로 과일과 찬물을 되도록 많이 먹는 것이 육각수가 많이 든 물을 마시는 방법이다.

“동강을 살려야 한다”

시민단체·주민 5단 집회 “개발보다 환경보전 중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별 건설 반대' 시위.

환경보전인가 개발인가. 건교부가 추진 중이던 동강댐 건설 백지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사회·시민단체는 반대집회를 계속해 나갈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주민들도 댐건설반대에 빛만 늘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67%가 반대한다는 한국일보 긴급여론조사결과 등 모든 매체가 이구동성으로 반대여론을 전하고 있다. KBS도 이를 계기로 4월 중순부터 주당 1편씩 환경다큐멘터리를 선보이기로 했다.

동강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비단 댐 건설을 막는 일 뿐만 아니라, 자원의 소중함을 깨달아 생생한 물의

낭비와 누수 방지,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즐기는 관람자들의 자세변화에까지 이어져야 한다.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을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법구경>의 말씀은 이번 논란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한 경책이다. 한명우 기자

춘곤증 이기려면...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카페인 삼가

마냥 감기는 눈꺼풀, 아무리 눈에 힘을 주어도 역부족이다. 낮이 길 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춘곤증. 그리고 직장생활 등에 대한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로 먹어라. 아침을 굶고 점심때 과식하면 춘곤증을 가중시킨다. ▲가벼운 운동도 필수적이다. ▲카페인 든 음료수, 술, 담배 등도 삼갈수록 좋다.

생활정보

임협중앙회 나무시장 운영

생활 임협중앙회는 나무를 심는 계절을 맞아 각종 묘목을 값싸게 판매하는 나무시장을 4월20일까지 개장·운영한다. 나무시장은 서울의 경우 서초구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단지과 강동구 상일동 화훼단지 등 두 곳과 지방은 도청 소재지 도지회나 시·군임업협동조합 등 전국 149곳에서 운영된다.

자동차세 세율 하향조정

서울시는 시 등록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하향 조정, 1천5백cc급 자가용의 경우 세급부담이 연간 3만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반면 주민세는 현행 4천5백원에서 4천8백원으로 올랐다.

벚꽃 관광열차 4종 운행

여행 철도청은 진해 군항제 등 각 지역의 벚꽃잔치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4가지 종류의 벚꽃관광열차를 운행한다. 진해 벚꽃관광열차는 27일부터 4월5일까지, 경주 벚꽃관광열차는 4월6일부터 11일까지 운행된다. 상계사 벚꽃관광열차는 4월7일부터, 전주~군산간 벚꽃관광열차는 4월10일부터 운행된다. (02)392-7788

동전이나 공중전화 걸기

통신 동전이나 전화카드가 없을 때에도 공중전화를 걸 수 있다. 지하철역이나 옥외 부스의 공중전화를 이용할 때는 ‘긴급버튼’→‘151’ 순으로 누른 뒤 자동안내에 따르면 된다. 일반전화에서는 1541번만 누르면 된다.

강변북로 제한속도 완화

교통 서울경찰청은 강변북로의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70km에서 80km로 올리는 등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적용돼 온 속도제한을 완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각각 시속 60km 및 70km인 올림픽대로 노량대교 구간과 강변북로의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80km로 상향 조정된다.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서

방송 MBC는 96년 TV의 아카데미상 수상한 수준급 해외 다큐멘터리 10부작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서’를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40분부터 1시간동안 방영한다.

△대 이집트: 불멸의 추구(27일) △메소포타미아: 예언으로 복귀(4월3일) △에게해: 아틀란티스의 유산(4월10일) △그리스: 찬란한 문명의 순간(4월17일) △아마: 왕들의 피(4월24일) △트마: 최후의 황제(5월1일) △티벳: 시간의 끝(5월8일) △아프리카: 부정된 역사(5월15일) △중국: 절대 왕권의 시대(5월22일)

한자(漢字)는 현실입니다.

“불경(佛經)공부, 그 어려움은 오로지 한문 때문에...”

한자 2,000자 강의 편

기본 부수 214자를 중점 강의하였으며 교육부 지정 한자 1,800자에 실용한자 200자를 덧붙여 총 2,000자를 그림과 함께 그 유래와 쓰임새를 알기 쉽게 강의

(비디오테이프 2시간용 20개·교재 2권)

한문문법/고사성어 강의 편

한문불경이나 고전 공부에 가장 절림들이었던 한문문법을 허자 중심으로 총정리하여 한시, 고전 등의 풍부한 예문과 함께 강의하였으며, 고사성어 80여 문구까지 강의

(비디오테이프 2시간용 3개·교재 1권)

●비디오로 한문을 직접 배운다! ●이래한 선생님의 한문 강의 비디오 교재

문의처 : 한영 미디어 02)516-7500(대)

극대 최초 인체공학설계

실용신안 특허 공개 실 1998-02509 의장등록 출원 제 14367호

참선·명상·단전호흡 수련방식

수행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영성이 부를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식이 개발되었다.

제품의 특징

- 영성이 모양 인체공학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 영성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무릎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편다.
- 크기가 작아 휴대·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법

사상, 신명단계, 선방, 심신수련 단계 등에서 필요한 제 품이다. 사할 관매용, 보시용, 초파일 등의 기화상품으로 다량 구입하면 귀한 제의 이름을 제품에 새기고 도매가격으로 납품합니다.

- 색상 : 곤색, 고훈, 회색 갈색, 카키색

※ 통신판매 가능, 전화 주십시오!

전국 도·단위로 총판권을 가지고 영업하실 분, 불교용품 유통업체는 연락 주십시오.

인체공학제품 개발 전문업체
“한얼휴텍(Hanol Human & Technology)”
TEL (02)433-7447/ FAX (02)433-7417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기를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통풍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온수: 미리 저정된 온수를 사용함으로써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써 마루방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문의전화
02)883-7400(대)
영업부 : 02)877-6090
FAX : 02)876-3378

천천옥산가옥의 신비!

氣(氣)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옥 옥면이 최음 10분후 색은 손의 분홍 피로가 활발하다. 연속 사용전 1.5μV 연속사용후 3.0μV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오장, 스트레스, 횡병, 노화방지...

너무힘들 때는, 옥을 같이 사용해 보세요!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용 결과

중국내 난치병 환자들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목본108염주(10mm, W60,000)
중환자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 91.3%, 두통 83.3%	목본이 경우 옥환제용 건강보전기경력 6000용 무거운 것을 씹어하는 분에 적합 머슴지리를 잘 볼 수 있고 담정자의 心을 줄일 수 있어 좋다.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옥산가옥의 의미는 아니지만 한의사 소수(1)에 전역은 미명용 다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링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02)777-0105 (우편번호)